

투데이 칼럼

맛있는 전북 만들기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으로, 미식 체험 관광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여행지로, 특히 전통 음식과 관련된 관광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풍성한 식재료와 전통 음식 문화로 인해 미식 체험 관광 상품 개발에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전북이다.

우리 도를 찾는 방문객 통계를 보면, 전주, 군산, 남원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주는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등 전통 음식을 맛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김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 음식은 관광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023년 국민 여행 조사에서도 방문 관광객들의 음식 소비에 대한 지출이 전체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역의 전통 음식이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도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전주비빔밥, 전주 한정식, 순창 고추장, 남원의 추어탕, 고창 장어구이 등 다양한 음식이 존재하고 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맛이 있을



이진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 미식 체험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도의 미식 체험은 각 음식이 가진 고유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더욱 풍성해진다.

예를 들어, 전주에서는 전주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역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아 맛볼 수 있고, 순창에서는 고추장 만들기 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직접 만든 고추장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식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음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식 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현재의 전통 음식을 맛보는 것을 중요한 여행의 동기로 삼고 있다.

특히 지역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식 체험 관광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다.

미식 체험 관광의 또 다른 발전 방향으로 농촌 지역과의 연계가 있다. 우리 도는 풍부한 농산품로도 유명한데, 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농촌 관광과 미식 관광을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창의 청보리밭에서 자연을 즐기고, 고창의 특산품을 이용한 요리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연과 음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

공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지역 축제와 연계한 미식 체험 관광 상품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비빔밥 축제는 전주비빔밥의 전통과 맛을 널리 알리는 행사로, 이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전주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요리해 보는 체험을 통해 지역의 맛을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음식에 대한 높은 소비지출을 보이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식 체험 관광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매도 증가는 물론, 미식 체험 관광 상품의 개발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고유의 전통 음식과 풍부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미식 체험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미식 체험 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여 더욱 맛있는 전북을 만들어 보자.

사설

일본 가정연합 해산명령

최근 일본 도쿄에서 세계 각국 종교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종교자유회의(IRF)를 열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습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취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청구를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IRF는 국제종교단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옹호를 표방하고 있다.

이날 국제종교자유연합(ICRF) 일본위원회는 “일본에서도 종교적 편견과 무지가 확산되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이 자행되는 것은 사회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국가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ICRF는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법 위반을 근거로 이뤄져 온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청구가 가정연합의 경우 민법에 근거했다는 점을 포함은 것이다.

ICRF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청구는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에 대해 지적인 위법한 행위의 조직성, 계속성, 악질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해산명령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자 구제가 “가정연합의 법인이격이 소멸돼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가정연합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종교의 자유는 본인 내면의 문제로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딸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와 함께 다혜 씨가 소유 중인 제주도 별장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혜 씨 전 남편의 취업과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이 있었는지, 특히 제주도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별장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압수수색한 건물이다.

원래 문 전 대통령의 지기인 송기인 신부 소유였다가, 다혜 씨가 지난 2022년 매수한 별장이다.

검찰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다혜 씨가 수억 원에 이르는 별장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하려는 걸로 알려졌다.

이 별장을 공유 숙소 서비스에 올려서 발생한 임대 수익 등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가 관리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다혜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를 추적했고,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민 씨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장 구입 시점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라며 “청와대 인사가 관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의원은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야당 탄압 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 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라파스로 행진하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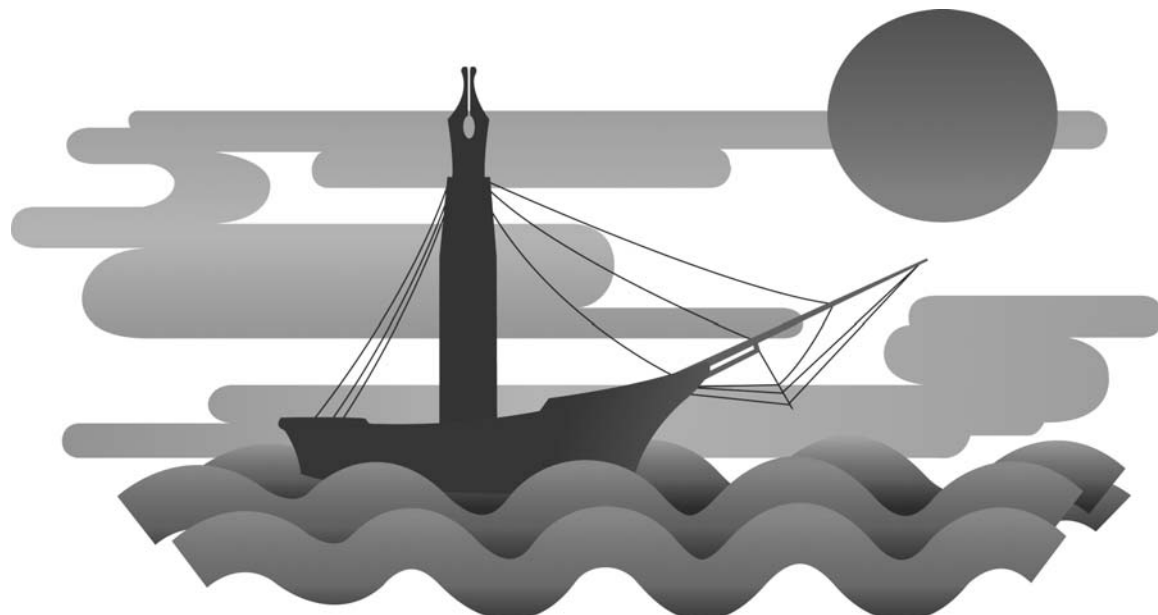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엘알토에서 수도 라파스로 행진하고 있다. 볼리비아 전 정권 지지자 수천 명이 수도 라파스까지 행진하면서 루이스 아르세 현 정부 지지자들과 폭죽, 시제 폭발물, 돌 등을 서로에게 던지며 충돌했고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다. 볼리비아 보건부는 이 과정에서 최소 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공습에 연기 치솟는 레바논 마을



23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미르자운에서 바라본 크파르 레멘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